

2017년 11월 21일,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좌기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충사(남, 1942년생, 대정읍 무릉2리)

제보자2: 김태일(여, 1942년생, 대정읍 무릉2리)

- 줄거리: 도깨비는 비가 올 것 같은 흐리고 침침한 날에 잘 나타났다. 좌기동에서는 왕개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주로 도깨비가 나타났는데, 새벽에 왕개동산에 있는 물통에 물을 길러 간 사람들 앞에 환한 불로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.

[조사자] 옛날 어르신들은 도체비 뭐런 험디가? 어떨 때 나타나고 어떻게 생겼고…….

[제보자1] 날씨가 좀 비 올 것 7뜨고 그럴 때 도체비가 잘 나타나마씨.

[조사자] 우칠 때예, 우칠 때 잘 나타나예.

[제보자1] 비 올 때는 아니고, 비가 올 것 같으다 허영, 날씨가 좀 흐리곡 좀 침침할 때.

[제보자2] 침침할 때.

[조사자] 예, 그문은 옛날에는 특별히 뭐 여기에 잘 나타나는 곳이 잇었우과?

[제보자1] 저저, 어디 거기.

[제보자2] 왕개동산.

[제보자1] 예, 거기 혼 새벽 두 시사 뉘엿인디. 혼 시사 뉘엿인디.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 물이 엇어가지곡. 저기 물 하늘 받이 물이, 물통이 잇어낫우다게.

[제보자2] 봉천수, 봉천수.

[제보자1] 응, 거기 가서 물을 길러 가는데. 이만헌 불이 싹 이쪽으로 오더니만 거기 오니까 싹 엇어졌어. 그러니까 무서워서 물 질렐 못 간마씨게.

[조사자] 불은 색깔이 잇입데가?

[제보자1] 그냥 너무 환한 색깔이라마씨.

[조사자] 거문 불 봐지문 보통 도체비 봐졌덴 험니까?

[제보자1] 예, 경 허곡 불이 갑저기 사라져마씨.

- 핵심어: 왕개동산, 도체비(도깨비), 물통, 불, 비, 봉천수